

“혼자보다 함께, 융합으로 답을 찾다”

GIST AI-ACE 이노코어 연구단, '2026 성과공유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출범 1년 연구성과 점검과 공동연구(Co-Lab) 협력 체계 강화
- 지적재산권 확보 전략과 단백질 구조분석 AI 실습으로 연구경쟁력 강화



▲ 8월 6일(목)과 7일(금)에 진행된 '2026년 성과공유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뇌질환 조기진단을 위한 AI+나노융합 이노코어(AI-ACE InnoCORE) 연구단(단장 이은지)이 8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이틀간 GIST 오룡관에서 '2026년 성과공유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3월 첫 워크숍에 이어 4대 과기원 및 참여기관의 멘토 교수진 35명, 박사후연구원(InnoCORE Fellow, 이하 펠로우) 50명, 외부 연사 등 90여 명이 참석해 지난 일년간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멀티멘토링에 따른 공동연구(Co-Lab)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2025년 9월 출범한 AI-ACE 이노코어 연구단은 신소재공학과 이은지 교수가 단장을 맡아 인공지능(AI)과 나노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정밀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AI + S&T융합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연구단은 퇴행성 뇌질환의 조기 진단을 목표로 ▲A세부(Artificial Peptide)는 단백질

구조 변화를 감지하는 '나노소재' ▲C세부(Collective Intelligence)는 단백질 신호를 검출하는 '나노광학소자' ▲E세부(Emerging Devices)는 단백질 구조 변화를 분석·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융합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8월 6일(목) 열린 성과공유회에서는 이은지 단장의 연구단 운영 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세부 분야 리더 ▲A 세부 신소재공학과 이재영 교수 ▲C 세부 AI학과 이현주 교수 ▲E 세부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정현호 교수가 분야별 연구 성과와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워크숍에서 우수 포스터 수상자로 선정된 임성일·이다영 펠로우가 수상 연구의 발전 과정과 후속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임성일 펠로우는 9월 숙명여자대학교에 임용예정이다.

이어 초청 연사로 나선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백민경 교수는 AI를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 기술과 바이오 분야 활용 가능성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승재 교수는 뇌 염증이 퇴행성 뇌질환을 유발하는 분자 기전을 주제로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했다.



▲ (왼쪽) C(Collective Intelligence) 세부리더 GIST AI학과 이현주 멘토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공동연구 도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 초청연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승재 교수가 뇌 염증이 퇴행성 뇌질환을 유발하는 분자 기전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성과 공유 세션'에서는 펠로우 50여명이 포스터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공동연구 (Co-Lab)'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공동연구(Co-Lab)'는 4대 과기원 및 산학연, 세계석학 멘토교수들의 멀티멘토링을 통해 펠로우들이 주도적으로 융합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연구단의 대표 협력 모델이다.

둘째 날인 8월 7일(금)에는 연구 성과의 특허 전략과 인공지능(AI) 기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이 진행됐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변리사가 '특허 발굴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이어 아마존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 소속 김현민 강사가 'AI를 활용한 단백질 엔지니어링'을 주제로 **실습형 워크숍**을 진행했다.

연구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수 **연구 성과**를 **지적재산권 확보**와 **기술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실무 역량**을 높이고, AI 기반 단백질 설계 등 **최신 기술**을 연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였다.

AI-ACE 이노코어 연구단 이은지 단장(신소재공학과 교수)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난 일년간 연구단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4대 과기원**을 비롯한 **참여기관**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연구단**의 **우수한 펠로우**들이 **국내외 우수 대학교, 연구소, 회사** 등에 **임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멘토 교수**와 **펠로우**가 **긴밀히 협력**해 AI 융합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